

쓰지세이지샤

쓰지세이지샤는 쓰지 가문이 운영하는 도자기 공방이며, 17세기부터 자기를 생산해 왔습니다. 도자기 공방의 건물은 조상 대대로 일족이 살아온 집이며 1863년에 지어졌습니다. 현재는 아리타초의 중요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부지 안으로 통하는 문의 오른쪽에 있는 나무 명판에는 350년 넘게 궁중 납품업자인 도자기 공방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문의 문틀에서도 시간의 흐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집 앞에 있는 거리는 과거 쓰지 가문의 부지로 막혀 있었기 때문에 마차는 문 안의 조금 넓은 곳에서 유탄해야 했습니다. 문의 왼쪽 하단에는 마차로 인해 생긴 굽힌 자국을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일부 거리는 도로 폭이 매우 좁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약간 떨어진 공유지에 차를 주차해야 합니다.

청색의 하회(청화)로 장식된 쓰지 가문의 백자는 얇으면서도 꽃과 새 등의 상서로운 상징을 조화시킨 훌륭한 디자인으로 유명합니다. 궁중에 바치는 주문품은 깨지기 쉬운 데다 완벽한 품질이어야 하기 때문에 특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러한 정성을 들여 직접 만든 작품이 마지막 소성 공정에서 재와 연기로 인해 망가지지 않도록 쓰지 가문의 8대 당주는 고쿠신야키라고 불리는 독자적인 소성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소성하는 작품은 동일한 미소성 점토로 만든 내화갑 같은 용기에 넣어집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소성하면 바깥쪽 용기에 의해 안쪽에 있는 작품이 보호됩니다. 옛날부터 도자기 공방은 장작을 가마의 연료로 사용해 왔지만, 현대 도자기 공방의 대부분은 생산을 간소화하는 컴퓨터화된 공정에 의한 가스 가마나 전기 가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지세이지샤에서는 50년 넘게 가스 가마를 계속 사용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수리하여 가동하고 있습니다. 모든 작품이 완벽해야 하기 때문에 습도와 공기의 질 등의 조건에 맞추어 조절하는 것은 쓰지세이지샤의 생산 공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가마로 바꾸려면 현재 사용하는 가마로 50년 이상에 걸쳐 쌓아온 완벽한 소성 기술을 다시 습득해야 합니다.

쓰지 가문은 에도 시대(1603~1868)부터 이어져 온 아리타 지역의 유일한 궁중 납품업자입니다. 결국 쓰지 가문의 가마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작업량을 분담하기 위해 다른 도자기 공방도 납품업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란샤는 창립하자마자 궁중 납품업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고란샤의 창립자는 8대 후카가와 에이자에몬(1832~1889)과 쓰지 가문 11대 당주이자 에이자에몬의 처남인 쓰지 가쓰조(1847~1929) 등 아리타 도자기 명공들이었습니다.